



# 늦바람 난 여자

이주연 / 시민미술단체 '늦바람' 사무국장

**저** 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몇 년  
그리더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에 얽매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시민미술단체 늦바람. 그곳은 내 꿈을 다시 펼쳐준 곳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술을 등지고 살던 나. 회사생활에 싫증날 무렵 입시생 위주인 일반 미술학원의 분위기가 싫어서 이곳저곳 알아보기만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만난 곳이 늦바람이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그림에 늦바람 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늦바람 활동 중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의 어린이날 행사에 자원봉사하는 페이스페인팅이다. 붓을 주사인줄 알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해주건 말건 무표정한 아이. 아이의 모습에 그린 예쁜 그림을 보고 흡족해하는 부모들... 어찌 보면 그리 요란할 것도 없는 행사에 작은 책상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어떤 대형행사보다 늘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어린이 얼굴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 자신이 그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며 자신와 헛된 욕심들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소중한 경험과 더불어 늦바람을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은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어렸을 적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싶었지만 본인의 생각에 소질이 없어서 등등 늦바람의 문을 수줍게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연은 참 다양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한 편안하게 그림을 접하게 도와준다.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늦바람에서 그림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 가는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느낌대로 그리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나 자신 또한 그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곤 한다.

1주일에 1회 수업. 가볍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직장생활을 해본 나로는 직장인이 그 짧은 시간을 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그 만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회원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한 수업시간에 날로 향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또 본인의 작품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순간이다.

따뜻한 봄이 되면 그림을 시작해 보려는 사람들로 늦바람은 북적댄다. 누군가 또 그림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그들의 생활이 변화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또다시 미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항상 그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